

## 조합원의 징계 사유

2020년 7월 2일자 징계 처분을 받은 남\*\* 조합원은 지난 13대 임원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상벌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자로서 이번 징계는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별칭:단결)를 통하여 현 이사장 및 이사, 대의원등에게 있는 사실과는 달리 비리의 온상이라 칭하면서 인격모독,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각종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을 반복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현재의 조합체계를 부정하고 조합원간 분열을 조장하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등 조합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악의적이고 개정의 정이 없어 보이지만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최소의 징계 처분인 “경고”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 징계사유 : 밴드에 기재된 허위사실·유언비어

허위사실·유언비어	사실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회 회의 참석시 조합 출장비 예산으로 20만원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회 회의 참석 목적으로 별도의 출장비 지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충전소 영망정창, 파산지경</li> <li>▶ 복지비 탕진, 복지충전소 부실운영</li> <li>▶ 김승일은 조합 재산을 탕진하면서 역대 연봉을 챙겨가며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음.</li> <li>▶ 김승일은 일은 안하고 월급, 판공비, 출장비, 회의비등 능력 없는 무식한 자가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조합비와 복지비를 축내고 있음(조합 예산은 이사, 대의원회에서 형식적인 결의이고 예산 집행에 대한 진위는 모르고 있음)</li> <li>▶ 이사장은 자기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 대의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포장하고 월급, 판공비, 회의비, 출장비, 기밀비등 별별 항목을 만들어 조합비를 빼쓰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의 예산집행은 예전과는 달리 근검·절약하여 매년 2억여원의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년2회의 감사과정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 또한 소식지에 공지하고 있음.</li> <li>▶ 복지충전소 운영은 2017년부터 3년간 흑자로 전환 운영되고 있음.</li> <li>▶ 이사장 몫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봉급 외에 판공비, 기밀비등이 있으나 회의비, 출장비 명목의 지급예산은 없으며, 지출도 되지 않음</li> <li>▶ 복지기금은 조합원들의 이직위로금, 경조사비로만 사용되는 예산임(조합 운영비로 사용 못함).</li> <li>※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이사장 및 직원을 상대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한 조합비 횡령·배임사건이 검찰의 “혐의 없음”결과로 결정되어 조합운영의 투명함이 입증되었음.</li> </ul>

- ▶ 김승일은 공공의 적이다.
- ▶ 이사가 된 자가 조합을 망치고 있다며 조합원 모두가 쫓기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이사장 직에서 하루 빨리 몰아내야 한다.
- ▶ 인천개인택시조합은 암덩어리 기생충 서식지이다.
- ▶ 인천개인택시조합은 감사이사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각 씨클장이 김승일의 추종자가 절대 다수이며 김승일 뜻대로 결정된다.
- ▶ 인천개인택시조합 뇌 없는 김승일뿐만 아니라 그에게 빌붙어 있는 감사이사대의원, 씨클장의 거짓말과 행동입니다. 그들은 조합원들의 공적이고 기생충입니다.

- ▶ 이사장 및 대의원은 조합원님들의 직선으로 당선되었으며, 이사감사는 대의원들에 의해 뽑혔습니다. 결국 이 모두는 조합원님들의 대표이고 조합원님들의 대변인입니다.
- ▶ 이를 무시하고 공적이니 기생충이니 말하는 것은 인격모독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조합을 부정하며 조합 체계를 분열시키려는 사악한 행위로서 조합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임.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